

다산포럼



김영국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

애매한 나이, 애매한 경력, 그리고 애매한 공부. 필자의 현재를 규정하는 좌표이다. 공자는 40에 불혹(不惑)이라 했는데, 이 때만큼이나 공부하는 주부는 혼든 구간이 또 있을까 한다. 하지만 버틴다. 세상의 수많은 경력 단절 여성들, 공부하는 엄마들은 나름의 '버티는' 방법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을 것이다.
나의 위치가 이토록 희미한데, '광장에서' 공공의 논의'가 과연 가능할까 끊임없이 의심하고, 우려했다. 그러다 문득, 지금 이 시대, 이 공간을 살아가는 애매한 내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친다. 인생길에서 40대나 50대란 흔히 말하는 '코어'(core)에 해당한다. 삶의 근육을 키워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나와 같은 범인(凡人)은 어떤 선택을 해야 그나마 하우(下惠: 아주 어리석고 못남)의 삶을 면하게 될까 좌우를 두리번거리기 일쑤다. 그러다가도 내 스승들의 일상에서 그 실마리를 마주하게 될 때면, 불안함은 조금씩 줄어들었다.
치곡(致曲: 사소한 일에도 극진히 함을 이룸)이다! '역린'(逆鱗)의 현빈만이 용얼거릴 수 있는 대사가 아

스승과 함께 치곡(致曲)을!

니다. 사람으로서 도리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 삶의 어려운 구간을 넘어가게 하는 동력이다. 사실, '치곡'이란 말은 생활에 스며야 마땅하지만, '중용'에 갇혀 어마어마한 무게감만 따로 논다. 이 두 글자 속에는 나로부터 타자와 세상을 변화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기 때문이니 그럴 만도 하다. 허나, 이 역시 스텝 바이 스텝. 단 한 번도 선현들은 엄등(嚴等: 순차대로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청학이나 왕명 등을 통해 순서를 뛰어 넘어 제수되는 것)을 권한 바 없다. 자신의 삶을 바꾼 흔적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겠는가?
순안에서 전 세계 모든 정보가 찰나에 바뀐다. 시비의 기준 또한 어지럽다. '마음의 상처'가 '마상'으로 던져지는 언어의 경제성을 목격할 때, 70년대생 아줌마는 한 번 더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 도대체 얼마나 더 큰 보폭과 짜릿한 감각으로 이 시간대를 따라가야 하는 나 말이다. 물론, 반문(反問)이 따를 수도 있다. 유사 이래 이처럼 빠르고 섬세하게 사소함이 대두된 적이 있었던가. 이처럼 투명한 담론의 장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던 적이 있던가. 그 편의를 그대로 누리지 않는가라 한다면 주춤할 것이다. 그래도 답갈지는 않다. 그 '사소함'이란 것이 자신을 위한 검증으로 쓰이는 미담은 거의 드물기 때문이다.
'치곡'을 강(講)하고 논(論)하던 독서 사인들은 '사소함에 정성을 다하라'는 메시지가 이처럼 홀대받는 시절이 올 줄 예상했을까? 예시란 마치 가마솥 밑의 검댕처럼 현연히 생긴다('장자-잡편')라 했으니, 스스로 태어남의 순간에 개입할 여지란 없다. 그렇다 해도 비교적

관잖은 흔적을 남기며 가는 건 '선택과 결정'의 영역이라 위안이 된다. 문제는, 치곡을 혼자서 잘 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만일 나의 앞과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스승이 있고, 그들 곁에서 더디게나마 촛보라도 나아가고 있다면, '사소함에 충실할' 준비는 갖출 셈이다.
대선이 코앞이고, 여전히 집값은 집값 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우환(迂患: 곧바르지 아니하고 에둘러서 실제와는 거리가 멀다)한 이야기가 무슨 소용이 있을 까마는, 결국 정치는 그 무엇이든 사람이 하는 일이니 '주체'보다 '주체'에 짐짓할 필요가 있다. 아무리 한 인간으로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독행'(獨行)의 시기라고 하지만, 우린 여전히 무리 안에 존재한다. 그렇다 치면 가장 다정한 인류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생물학자들의 평은 적실하다.
다정해서 살아남았더니, 가슴 설레는 말이 아닐 수 없다. 일세의 통유(通儒)들은 정스럽고 겸손하며, 세심했다. 퇴계와 그리고 다산이 그러했음은 우리 모두 안다. 다만, 내게도 그러한 스승이 있을까 돌이켜보는데 시간을 내지 않을 뿐이다. 다산포럼에 참여하며 혹여나 아포리즘을 향한 꿈을 꾸는 것은 아닐지, 이러한 환경에 빠지지 않기를 경계하고 또 경계하며 기필(起筆)했다. 세상 재미없는 이야기가 '나는 못해도 너는 이리이러하게 살아야만 한다'라는 자기(自欺)의 충고이다.
나의 존경하는 스승들은 담담하게 일상의 치곡을 행하시느라, 제자를 박절하게 대할 여유가 없다. 그러니, 내 스스로에게 직접 말하는 수밖에. "너나 잘해라!"

기고



조상중
정읍시의회의장

1991년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의 열망으로 지방자치기 부활된 이래 올해로 30주년을 맞았다.
논어에 서른 살이면 '이립'(而立)이라 하여, 스스로 뜻을 세우고 설 수 있는 나이라 했다. 이는 자신의 인생을 책임을 지기 시작한다는 뜻이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설계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역시 서른 살을 맞이하여 이립(而立)을 증명하기라도 하듯 지방자치법의 전면 개정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지방자치법의 주요 내용은 정책 지원 전문 인력 도입, 인사권 독립,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신설, 주민감사 청구인 수나 청구권 기준 연령 완화 등이다.
이와 함께 의장의 의정에 필요한 인력과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발할 수 있게 되었고, 주민 참여와 자치입

30년 맞은 지방자치, '이립'(而立)의 계기로

법권이 확대되어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는데 힘을 실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현재 기관 대립형 구조로만 운영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을 주민투표로 다양하게 바꿀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핵심 사안이다. 그동안 지방의회 인사권을 각 지자체장이 도맡으면서 지자체 감시를 주 역할로 하는 지방의회의 지자체 견제·감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없이 받아온 상황이다.
지역 주민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시킨 내용도 주목할 만하다. 주민투표를 거쳐 의회, 단체장 등 기관 형태를 지역 여건에 맞게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지자체 정책 결정·집행 과정에 주민의 참여 권리를 명시했다.
이러한 지방자치법 개정은 주민자치와 함께 지방의회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의회가 의정 활동을 통해 제대로 집행부를 견제해야 내실을 기할 수 있고 지역민 행복으로 이어지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에 한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자치 분권을 염원하는 국민의 의식과 수준이 반영된 변화의 결과물이다. 그동안 급변하는 사회환경과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확대는 오랫동안 과제로만 남아 왔었기에,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은 지방의회의 숙원이었다.

자치 분권은 주민 대응성 향상뿐 아니라 경쟁의 축진을 통해 창의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경제의 성장을 앞당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기대 효과의 이면에는 지방 간의 불균형 심화,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연계의 약화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
거센 변화의 바람과 시대의 큰 물결 따라 국가의 형태가 중앙집권형에서 지방분권형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중요성은 날이 커져 가고 있고, 그 역할도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
이제 의회는 '사후 견제, 수동적 심의'라는 전통적인 의회 기능에서 벗어나고 '약한 의회, 강한 집행부'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의회 역량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기능적 권력 분립을 통해 중앙의 권한이 지방과 지역 주민에게 이양되어 자치 중앙에 권력이 집중되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방지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주민 자치회를 법적으로 보장해서 주민들의 주도권을 높이고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면서 지방의 재정 권한을 전반적으로 확대해야 된다.
지방의회의 독자적인 조직권·의사권·운영권·예산권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지방의회법도 필요하다. 이렇게 산재된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머지않은 미래에 지방의회가 자주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며, 이를 통해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기고

콘텐츠산업 지역 특화해야



이준근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코로나 팬데믹으로 힘들었던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콘텐츠 분야에서 돌이켜 보면 '다사다난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한 해가 아닐까 싶다.
지난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있었다면 올해는 단역 황동혁 감독의 '오징어 게임'이다. 456억 원의 상금이 걸린 의문의 서바이벌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최후의 승자가 되기 위해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게임을 벌이는 드라마가 전 세계인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되는 모든 국가에서 1위에 등극을 하고 심지어 해당 OTT가 서비스되지 않는 중국에서도 광풍에 가까운 인기를 누렸다.
최근 2년 동안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한류 콘텐츠는 위에서 이야기 한 두 개의 영화와 드라마 말고도 많이 있다. 2020년 1월에 해외 종합 순위 1위를 차지한 '이태원 클라쓰'와 연속 천만 관객을 동원한 '신과 함께' 시리즈, 그리고 최근 개봉해 연일 인기 상승가를 누리

고 있는 연상호 감독의 '지옥'까지. 이들 콘텐츠의 공통점이 있다. 바로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콘텐츠의 스토리텔링이 좋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전에 웹툰이나 애니메이션, 웹소설 등을 통해서 사전에 검증받은 스토리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스토리에 대한 컷 편집이다. '아니 여기서 중요료를 하면 다음 회를 안 볼 수 없잖아'가 외국 유튜브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렇게 전 세계적인 즐기는 대한민국 콘텐츠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녹록치 않다. 특히 웹툰 산업의 구조를 보면 미국과 일본 등에서 물량을 수주하고 이를 인건비가싼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재발주를 주는 시스템으로 돼 있다. 수주 물량의 70%가 해외로 빠져 나간다는 것이 업계의 정설이다.
이것을 반전시킬 만한 기회는 있다고 본다. 바로 수도권과 지방의 콘텐츠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다. 지난해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웹툰과 애니메이션 기업 429개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있다. 비율로 보면 전체 기업의 84.2%이다. 심종팔구는 수도권에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방으로 이전하는데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필자도 콘텐츠산업의 종사자로서 콘텐츠산업의 수도권 집중화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하

고자 한다. 첫째는 콘텐츠산업 산·학·연·관 기관들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콘텐츠산업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콘텐츠는 어느 한 기관이나 대학 등의 노력으로 집중되거나 발전되지 않는다. 모든 요소를 포괄했을 때 서서히 빛을 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지역별로 공통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차별성을 둘 필요도 있지만 상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콘텐츠는 상호 보완 또는 시너지가 나는 것이 최고인 것 같다. 순천의 웹툰이나 부산의 국제영화제 등의 지역별 차별성도 좋지만 함께 할 수 있거나 상호 보완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는 이야기다.
세 번째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지역 콘텐츠 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은 관광과 게임을 묶는 콘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는데 이것은 지역 특화 콘텐츠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후 기업이 성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으로 옮겨가는 욕구가 생긴다. 이것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지원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현재 전남은 실감 콘텐츠와 웹 드라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데 머지않아 '오징어 게임'처럼 세계적으로 눈길을 사로잡는 콘텐츠가 나오길 기대해 본다.

社說

백신 접종 부작용 피해 정부가 직접 책임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이 수 도권을 넘어 전일까지 침투했다. 국내 전체 확진자도 연일 7000명대 안팎을 기록하면서 좀처럼 수그러들 줄 모르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의료 대응 역력이 더 악화할 경우, 사회적 대응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특단의 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필요성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현재 국내 미접종자는 전체 인구의 19%, 18세 이상 성인의 8%지만 최근 2주간 중증환자의 51%, 사망자의 54%가 미접종자로 확인됐다. 전체 성인의 8%에 불과한 미접종자가 중증·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 믿을 건 백신 접종뿐이다. 하지만 1·2차 접종 때와 달리 현재 3차 접종률은 취약 계층인 60세 이상에서 33%

로 2차 접종 완료율(93%)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8세 이상 성인 부스터샷 접종률은 14%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이상 반응이나 사망 사례가 늘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백신 부작용 보상이나 '부스터샷' 접종을 놓고 나타난 미숙한 방역 행정도 이를 부추겼다. 실제로 그동안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주장하는 사례는 1000건이 넘지만 정부(질병관리청)가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은 두 건에 불과하니 그럴 만하다.
따라서 이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기준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려면 접종에 따른 부작용과 피해에 대해 정부가 확실하게 치료와 보상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학동 참가의 교훈 '재난은 잊으면 다시 온다'

광주시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했던 6월 9일이 시민 추모일로 지정된다. 참사 기록물을 보존·전시할 수 있는 추모 공간도 조성된다. 시민들이 참사를 기억함으로써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광주시는 '철거 건물 붕괴 참사 피해자 지원과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잊지 않고 공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 참사 1주기를 시작으로 매년 6월 9일 희생자 추모 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장소는 참사 현장인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 일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민이 참사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 공간 조성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유가족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천시의 세월호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 진도군의 세월호 기억의 숲 등 기존 사례를 참고할 예정이다. 언론 보도 등 참사 기록물을 모아 보존하고 전시하는 추모 사업과 함께 희생자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았던 '윤림 54번' 시내버스 차체의 영구 보존도 추진된다.
17명의 사상자를 낸 학동 참사가 발생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지만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여전히 더디고 미흡하기만 하다. 엄정한 수사 및 재판과 함께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자체의 현장 점검 의무화과 해체 안전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한 '학동 참사 방지법'의 국회 처리도 서둘러야 한다.
이와 함께 참사의 원인과 과정을 철저히 기록하고 관련 자료들을 보존해 시민들이 기억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이상 비슷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재난은 우리가 잊어버리면 그때 온다'는 말이 있다. 유가족들의 소망처럼 광주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단순한 희생자 추모에 그치지 않고 시민 안전 의식과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매서운 추위가 찾아왔다. 간밤에는 금세 눈이라도 뿌릴 듯한 기세로 밤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였다. 출퇴근길에 사람들은 뒤풀리 속에서 옷매무새를 고쳤다.
오래 전, 초겨울 산행 도중 뜻밖에 첫눈을 만난 적이 있다. 멀리서부터 구름인 듯 안개인 듯 한 무언가가 몰려왔다. 눈앞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훑날리는 눈송이임을 알 수 있었다. 졸지에 눈보라 속으로 빨려 들어간 듯했다.
책꽂이에서 몇 권의 시집을 꺼냈다. '첫눈'을 소재로 한 시들을 찾아 천천히 읽어 본다.
'한세상이 어두워지고 있네/ 마실 물과 맥을 땀 경적 속으로 / 마을들이 싸리꽃처럼 꽃을 띄우고 있네/ 인간의 사랑이 팔만사천 년 지속된다네/ 빈 땅의 이름들이 바람에 서걱거렸네..' (곽재구 '첫눈-미륵을 위하여, 운주사에서')
'첫눈 오시는 날 당신의 떠나기던 멀어 가던 발자국/ 하얀 눈길에는 먼 기다림이 남아 노을로 졌네/ 붉게 타던 봉송아 꽃물 손톱 끝에 매달려/ 이렇게 가물거리는 데/ 당신이 내게 오시며 새겨 놓으실 하얀 눈길 앞 발자국/ 어디쯤인가요...' (박

남동 '당신 첫눈' 중)
"...한 개의 마른 흑뱀을 사기 위해/ 영혼마저 팔고 돌아서던 길/ 발아래 밟히던 첫눈은 어땠을까/ 낙엽의 거리에 눈이 내리면/ 발자국 무성했던 대지도 시리지 않겠다." (송중찬 '첫눈은 혁명처럼')
시민들은 '첫눈'을 키워드로 각자 다른 시어를 읊조린다. 운주사 미륵상과 눈길 위 발자국, 마른 흑뱀의 이미지가 눈과 오버랩된다. 특히 러시아를 공간적 배경으로 하는 송 시인의 첫눈은 연방이 붕괴된 이후의 힘겨운 경제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 준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모두들 마음이 굳어 있는 듯하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있으니 그럴 만하다. 극심한 스트레스 속에서 거친 말과 행동이 불꽃불꽃 튀어나온다. 하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를 따뜻하게 이어 줄 '인정'(人情)과 상대 입장을 생각해 주는 '배려'가 무엇보다 절실하다. 총장로에서는 구세군의 자선냄비 종소리가 울린다. 코로나와 한과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따뜻한' 겨울이면 좋겠다. /송기문 문화2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